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2일 화요일 음 8월 12일 (4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6~28℃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풍랑이 강하겠으니 선박 운항 등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20%	성 산	10%
10%	고 산	10%
10%	서귀포	10%

	해뜸 06:21 해짐 18:31		달뜸 16:07 달짐 01:36
물때	만조 08:00 21:01		간조 03:01 14:12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1/27℃
모레		구름많음	20/28℃

미세먼지 (PM10):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좋음)

초미세먼지 (PM2.5):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좋음)

월드뉴스

시진핑 23~25일 미국 국빈방문… 정상회담

트럼프와 '희토류 담판' 주목

작년 10월 부산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25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방문 기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관계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대미 압박 수단이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희토류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했던 희토류 관련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 없이 "중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전 수호에 힘써왔다"고 했다.

한편 작년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내놓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 1년 유예 시한이 오는 11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궈 대변인은 이 유예를 더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중국의 주관 부처에 문의하라"며 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욱 편집국장 고 대 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추석의 식탁, 비교보다 서로의 삶을 바라보다

우 정 애
아들러심리치료연구소 대표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는다. 안부를 나누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의 이야기도 나온다. "누가 공부를 제일 잘했지?", "형은 참 의젓했는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야무졌어." 부모에게는 추억의 이야기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남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다. 잘한 아이를 칭찬하고, 부족한 아이에게 동기를 주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의도보다 자신이 경험한 의미를 통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한다. "나는 형보다 부족한가?", "나는 동생보다 인정받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비교는 어느 순간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재될 수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인간이 가족이라는 최초의 공동체에서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활양식(lifestyle)을 형성한다고 봤다. 중요한 것은 출생순위 자체보다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느끼며 성장했는가'이다. 부모의 기대와 관심, 형제자매와의 관계, 인정과 비교의 경험은 이후 인간관계의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가 반복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형성되면 달라진다.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내재된 비교는 학교를 지나 사회생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성적에서 시작된 비교는 직업, 연봉, 승진, 성과, 인간관계로 확장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부족하게 느끼거나, 남보다 앞서야 안심하는 모습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익힌 비교의 방식과 연결될 수 있다. 결국 가족 안에서 배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사회에서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격려는 결과나 우월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자신의 선택과 노력,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는 태도다.

"형보다 잘했구나" 대신 "네가 선택한 일을 해냈구나". "동생보다 낫다" 대신 "너만의 방식으로 잘해가고 있구나". 이러한 말은 자녀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번 추석에는 누가 더 잘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들어보면 어떨까. 가족은 처음 관계를 배우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배운 비교의 방식은 사회에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 안에서 비교를 배웠다면 이제는 존중을 배울 수 있다. 이번 추석, 가족의 식탁에서 서로의 삶에 순위를 매기기보다 각자의 삶을 존중해 보자.

열린마당

백문불여일견, 중국에서 만난 더 넓은 세상

이 정 원
표선고등학교 2학년

'백문불여일견'이라 했다. 이번 '제주 삼다수 청소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고사성어다. 지난 6월 경진대회에서 수상해 상하이·심천·홍콩 등 중국의 경제·기술·문화 중심지를 누비며 가치관을 넓히는 기회를 얻었다. 단순히 관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에서 모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은 소중한 배움 덕분에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경험이 됐다.

상하이 종신교육연구원에서는 중국 고등학생들과 생태 보존을 주제로 토론했다. 초반에는 부족한 중국어와 서툰 영어 실력 때문에 대화가 막혀 답답했지만, 서로 이 상황이 웃겨 터져 나온 웃음 한 번에 분위기가 반전됐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은 같은 또래 고등학생임을 느낀 후, 완벽한 소통을 내려놓고 바디랭귀지와 번역기, 아는 단어들을 총동원했다. 결국 상하이와 제주의 생태 협력 방안을 멋지게 발표해 냈다.

심천과 홍콩에서는 첨단 기술과 환경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깨졌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배달이 일상화된 심천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몸소 체감했고, '중국의 테슬라'라 불리는 BYD 본사를 투어 하며 '친환경'과 '인류의 편리함'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없앴다.

연수 동안 해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대했던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수많은 청소년 인재들에게 이런 배움의 기회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작은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한 추석 명절

공 태 웅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결실의 기쁨과 함께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민족 대명절 추석은 화기 취급 증가와 방심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화재 1371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493건으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발화요인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을 당부드린다.

첫째, 주방 화기 취급에 주의하자.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할 때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키친타월이나 가연물을 멀리 해야 한다.

둘째, 집을 비우기 전 전기와 가스를 점검하자. 불필요한 플러그를 뽑고 가스밸브를 잠가 누전이나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고향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 댁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하고 점검해 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자.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된 만큼, 귀성길 장거리 운행에 대비해 손이 잘 닿는 곳에 승용차 전용 소화기를 마련해 두자.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철저한 예방으로 막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가정에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